

ISSUE BRIEFING

2019. 10. 22

Vol. 210

2019

ISSUE BRIEFING

연구진

김형오_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장재협_ 사회문화연구부 전문연구원

공모형 지역관광사업의 전라북도 대응 방향



공모형 지역관광사업의 전라북도 대응방향

CONTENTS

1. 관광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사업의 중요성.....	01
2. 관광분야 공모사업 현황	02
3. 2020년도 주요 공모사업 전북 대응 방향.....	03
1)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역관광거점도시.....	03
2)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05
3)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07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1. 관광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사업의 중요성

◎ 지방분권에 따른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에 의거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을 발표
 - 지역자율계정 중 37개 시도자율편성사업은 15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축소, 약 2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대부분 시도자율편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¹⁾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추세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공모사업은 중앙정부 주도형·단일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
- 지방분권은 지역관광정책의 의미에서 볼 때 주민, 지자체, 관광사업자, 전문가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가 망라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관광정책 의사결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의 존재

◎ 국민, 지역주민, 방한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관광 정책으로 전환²⁾

- 정부는 인바운드 중심에서 국민과 지역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전환중이며 관광진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여행을 일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령별·계층별·지역별 관광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 중
- 지역 주도형 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한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별 매력적인 관광지를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 국토 균형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
- 양적 성장보다 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한시장 다변화, 방문지역·콘텐츠 다양화 및 고품격화 등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

◎ 공모사업 중요성에 따른 전북의 능동적 협력체계 플랫폼 구축 필요

- 전국 지자체에서는 관광개발과 진흥을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있기에 경쟁적 관계가 치열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광사업의 분절 및 중복 사업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하지 않는다면 지역관광은 향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점에서 전북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에 앞서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제65호) 참조 재작성

2) 관계부처합동(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포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2017.12.18.) 참조 재작성

전북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북은 2018년 관광객은 38,093천명으로 전북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심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와 시·군간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

2. 관광분야 공모사업 현황

◎ 2019년도 공모사업 핵심: 국민·지역 중심의 관광 정책 추진

- 지역별 매력적인 관광지를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 국토 균형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도모
 -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다양한 수요 대응
-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등 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 추진
 -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한시장 다변화, 방문지역·콘텐츠 다양화 및 고품격화 등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
 - 마이스, 의료, 웰니스, 럭셔리관광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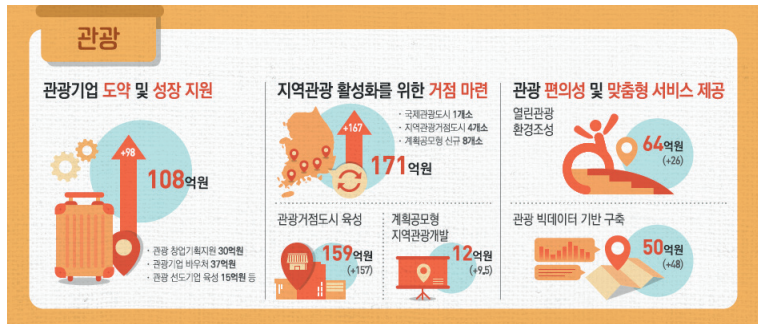
〈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자차단체보조사업(공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전통문화체험지원	전통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전통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코리아둘레길안내체계 구축
		코리아둘레길프로그램 운영
생태녹색관광 육성		
도시관광 및 산업 관광활성화	산업관광 활성화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생활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육성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민 관광 지원
해외관광객유치활동 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관광편의성 제고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레저기반 구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
		관광두레 지역협력 강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한류관광 활성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재작성

◎ 2020년도 공모사업 핵심 : 관광기업 지원 및 지역관광 거점별 육성 추진³⁾

- 정부는 미래 관광산업을 선도할 강소형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성장과 도약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을 신규 추진
 -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의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
 - 분야별 교육, 경영구조 개선 등 기업 혁신 활동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 이용권 지원'을 통해 관광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서울, 제주 외에도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 관광명소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일정한 관광기반시설과 매력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육성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은 기존 관광지, 유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
-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8.29. 보도자료

〈그림〉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사업(안)

3. 2020년도 주요 공모사업 전북 대응 방향

1) 관광거점도시 육성 : 지역관광거점도시⁴⁾

◎ 추진 배경

- 교통, 숙박, 정보 및 쇼핑 등 관광인프라, 수용태세, 지역역량 및 홍보전략 미비로 관광객 서울, 제주 등 특정 지역에 편중 심화
 - 전국 호텔업 51.9%는 수도권과 제주지역 집중됨. 외래관광객 지역별 방문율은 2017년 서울 78.8% > 경기 15.6% > 부산 15.1% > 제주 10.8% 순임

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8.29.) 참조 재작성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0.15.) 참조 재작성

- 관광거점도시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하므로 전라북도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전북 대응 방안 필요

- ‘국제관광도시’는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개 광역시 중 신청 도시를 대상

- ‘지역관광거점도시’는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

*국제관광도시: 서울과 제주 외의 방한 여행의 관문도시로, 세계적 수준의 관광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

*지역관광거점도시: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지닌 도시로, 세방화(世方化, glocal)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를 갖춘 기초도시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지역관광거점도시 4곳)
- 지원규모 :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재정당국 협의
- 사업기간 : 2020~2024(5년)
 - 2025년 이후 지자체 자체 재정투입구조로 전환하도록 단계적 안착 추진
- 추진방향 : 사업 추진 기본방향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관광 자원(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계획수립 : 지역과제 및 시장분석에 근거한 계획 수립 추진
 - 공간집약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상지 설정 (‘도보로 가능한 여행’ 실현)
 - 핵심사업 :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의 세계적 수준의 매력강화 추진 (대표자원 환경, 콘텐츠, 브랜드 육성 사업, 사업대상지 환경, 체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
 - 전략사업 : 지역의 여행 장벽 해소 사업(관광안내, 정보, 접근성 개선), ICT 도입을 통한 관광산업 대응력 강화, 지역관광 추진조직 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
 - 연계사업 : 지역 교통계획 및 도시계획(경관계획) 등 연계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일정(안)
 - 사업설명회(10.15), 공모·신청 접수(10.15~12.4), 사전 검토(12.5~12.9), 평가·선정(12.10~1.20), 예산배정 및 사업 추진(2월 경),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2월 경), 지속적 사업지원 및 관리

◎ 전북의 대응방향

- 전북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보다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공모를 위한 선추진이 요구됨. 전주, 익산, 군산 등을 대상으로 전북 도내 전략적 선정 추진 필요
 - 특히, 인구 20만 이상을 대상의 교통접근성(공항, KTX역, 터미널 등), 관광수용력(총객실 수 등) 및 관광매력성(대표관광지 보유) 등 사전 기준을 설정 후 전북도 내 공모 우선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사전 평가 후 공모 필요조건이나 요건 등의 검토 필요

-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고유의 콘텐츠 활용 핵심사업, 전략 사업, 연계사업 계획 수립 필요함. 3개 시군 컨셉은 다음과 같음
 - (전주시)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덕진공원과의 연계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하며, 특히 '안전하고, 안심하고, 모두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행복 관광도시' 컨셉을 바탕으로 열려 있는 관광지 전략 필요
 -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거점으로 백제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보석테마관광지와 연계 관광 마련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관광지' 컨셉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관광지 전략 필요
 - (군산시) 대한민국 시간여행 일번지로서의 기존 컨셉을 바탕으로 근대역사문화도시와 고군산군도 해양관광 연계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근대시간 여행을 통한 해양역사유적과 체험 관광지' 컨셉을 바탕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체험관광 거점 전략 필요

2)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⁵⁾

◎ 추진 배경

- 기존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및 사업계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정책 성과물 도출, 국비 지원을 고려한 시설 위주 개발 등의 한계 노출
- 기존 관광개발사업 지원방식에서 탈피, 지역주도적 사업 발굴 및 추진방식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관광활성화 여건 마련 필요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관광개발을 통해 침체된 관광지(자원) 및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전북도 차원의 대응 전략 필요
 - 지자체에서는 지역관광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단위 핵심 시설뿐만 아니라 연계활용 및 관리운영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시행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사업
 - 2019년도 2개 지역(경남 합천군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충남 서천군 '세계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8개 지역 선정 예정

◎ 사업 개요

- 사업범위
 - 공간적/시간적 범위 : 전국 시·군·구 / 중·장기(5년 기준)
 - 내용적 범위 : 종합지원형 지역관광자원개발계획을 수립 및 공모 제안,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전 주 기적 컨설팅 진행

5)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재작성

• 사업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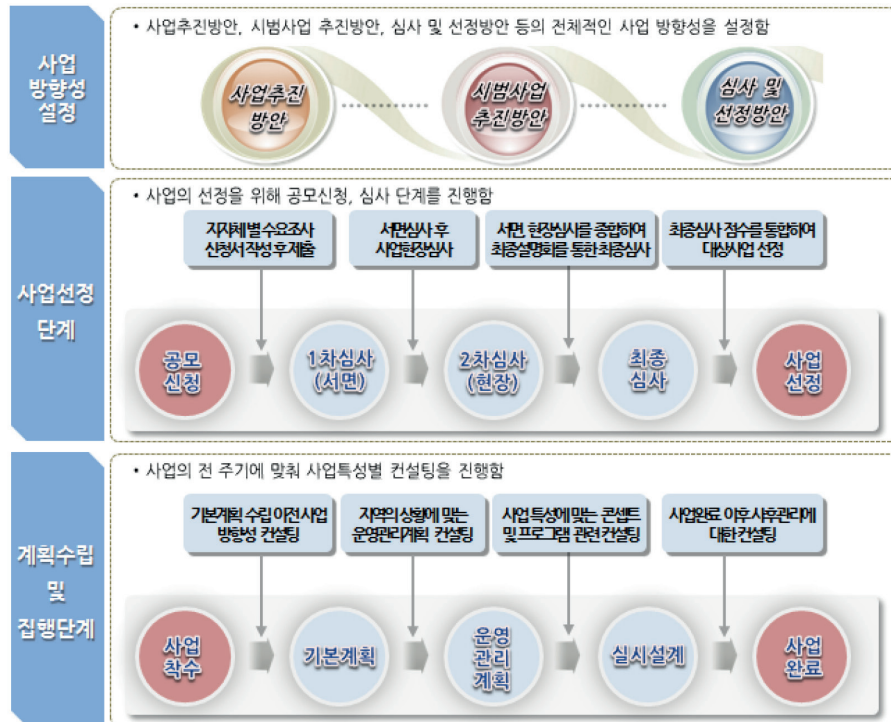
- 지역에서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 및 기획
- 자율적으로 기획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집행
- 사업 집행 완료 후 사후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 증진

• 사업 추진 주요 내용

- 사업 방향성 설정 : 사업 진행에 대한 자체적인 방향성 설정
- 사업선정 단계 : 공모신청 안내~심사 후 사업선정까지 단계 진행
-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 :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사업진행 전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단계별 사업 추진 및 사업 완료

• 사업유형(예시)

- 핵심사업 : 유후 노후시설 리모델링, 기 조성 관광(단지) 재생, 기 추진 생태관광자원개발·문화관광자원개발 활용, 지역 대표 관광명소 조성 등
- 연계활용사업 : 기존 관광시설 연계코스 개발, 관광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지역관광브랜딩, 홍보·마케팅 등
- 관리운영사업 : 관광창업시설, 창업인큐베이팅, 일자리 관련 사업, 주민사업체 육성,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지역관광 역량강화 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그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단계별 지원 사항

◎ 전북의 대응방향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방향 설정 및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전라북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시·군별 맞춤형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다음은 시·군 사업 예시)
 - (전주시) 덕진공원의 한국 전통정원과 도심 생활문화 관광자원과의 연계 관광
 - (군산시) 군산 근대화도시의 일제강점기 시대 체험의 산 교육장 및 문화공간 조성 연계
 - (익산시) 보석테마관광지의 보석박물관과 백제역사지구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적 연계
 - (정읍시) 전통차거리 활용 대한민국 전통차 플랫폼 조성 및 주민사업체 육성
 - (무주군) 반디랜드의 살아 숨 쉬는 반딧불이와 태권도원과 연계 관광지 조성
 -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 힐링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
 - (고창군) 고창읍성과 신재효 고택 및 판소리박물관 연계 거점 관광지 조성
- 공모사업 선정 평가 항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업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관광, 도시 계획, 건축, 문화 등 관련 전문가 자문 필요
 - 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취지 및 추진방향(특화소재 발굴, 기존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기반 마련)과의 부합성 검토, 핵심자원의 차별성, 특화요소 발굴 및 활용성 가능성 등 경쟁력 여부 검토, 각 단위사업 규모, 내용, 기능 설정의 적절성 검토 및 여부, 부지 및 건축물 확보 가능성(국공유지, 기부채납 등 포함), 예산투입계획, 인허가 절차 등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여부 검토
 - 추진체계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사업, 연계활용, 관리운영 사업의 추진주체의 역량(관광관련 사업추진실적 등) 정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협의체 구성 등 주민참여 가능성, 관련 규제사항, 지역/주민 갈등 등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계획 정도 검토
 -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고용 연관산업 활성화, 지역소득증대 개선 가능성 등 검토,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가능성 제고

3) 열린관광지 조성사업⁶⁾

◎ 추진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5년도부터 열린관광지 사업을 추진중임
 - 정부는 장애인·고령자·영유아가족 등을 열린관광지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00개소 조성 계획
 - 전국적으로 총 41개소 선정되었으며, 전북은 총 15개소 고창(1), 완주(1), 무주(1), 전주(4개), 남원(4), 장수(4) 선정
- 정부는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의 과제에 따라 관광여가 사회실현 도모를 위해

6)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참조 재작성

열린관광지 확대 계획이 수립함에 따라, 2022년까지 59개소 조성 예정 공모사업에 대한 전북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사업 개요

- 지원금액 :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1.6억 원 지원(2020년 예산안 개소당 2.5억)
 - 매칭 : 관광지점 개소당 1.6억 원(100%) 이상의 지방비 매칭 필요
- 사업내용 : 사업 전 과정에 베리어프리(BF), 유니버설디자인(UD)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 필수, 관광지점별로 진입시점부터 주요 관광시설·편의시설까지 최소한의 무장애 동선 조성, 확보된 동선을 바탕으로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관광권역별로 관광지점과 관광지점 간 동선 확보 및 정보 제공

국비	자본보조	1 시설 개선: 주차장, 매표소, 관광지점 내 주요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등 필수 이용시설을 연령, 장애와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및 표지판 설치
지방비	자본	2 동선 개선: 주차장, 매표소, 관광지점 내 주요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까지 이동 동선의 단차제거, 경사완화, 점자블록 설치, 비상등 설치 3 특화 콘텐츠 조성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체험시설 조성
	경상	4 열린 관광안내도 제작 : 이용자가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동선의 내용과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 가이드라인 준수 5 점자 안내도 제작 : 관광지 및 이용가능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점자안내도로 제작 ※ 가이드라인 준수 6 특화 프로그램 개발 :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1회성 행사 불가) 7 종사자 교육 : (1차) 열린관광지 종사자, (2차) 해당 지자체 관광 담당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열린 관광 교육 실시

◎ 전북의 대응방향

- 문화체육관광부는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2015년 추진 이후, 전라북도는 전국 대비 37% 높은 비율로 공모에 선정됨. 이는 타 지자체 비해 관련 연구가 축적되었기에 시군간 노하우 공유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20년 공모 사업 대비 필요
 - 2020년도에는 사업비 2.5억 원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존의 전라북도와 시·군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한 공모사업 대응 전략 필요
 - 전라북도는 열린관광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시·군에 대한 시·군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열린관광지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평가요소와 평가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업내용의 구체화 필요
 - 정량평가 대비를 위해 적절한 관광지점을 포함 및 권역 설정의 적절성 확인과 자부담 매칭 계획 및 증빙자료 확인 검토
 - 정성평가 대비를 위해 관광지 인지도 및 매력도, 외부접근의 편리성,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및 운영관리의 체계성, 개선계획과 실현 가능성 높은 관광지 상세한 검토 필요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2017.12

문화체육관광부(2019),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계획 및 양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4,758억 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광역시 1곳, 기초지자체 4곳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개발과 보도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65호



ISSUE BRIEFING
2019. 10. 22 **Vol. 210**